

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자 요구에 맞는 경제사업 펼칠 때

지난 7월 1일부로 통합농협이 출범하면서 양계축협들의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서울경기양계축협을 비롯한 지역 양계축협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장기화된 양계경기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서울경기양계축협 최준구 조합장을 만나 그 동안의 근황과 양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계축협의 역할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 편집자주 -

김동진 = 지난 1999년 2월까지 본회 회장직을 겸직하면서 양계산업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주시고, 최근에는 서울경기양계축협을 이끌면서 양계업 불황극복을 위해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근황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최준구 = 양계협회 회원은 물론 양계인들에게 월간양계를 통해 인사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동안 양계협회장을 겸직할 때 소홀히 했던 조합원 농가를 방문하여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양계농가의 실정을 파악하는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뿐 아니라 강원도까지 분포되어 있어 농가들을 일일이 방문하는데 팍팍한 일정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최근 채란경기가 다소 풀리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장기간에 걸친 양

계불황으로 양계인들이 큰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같은 양계인으로써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협회를 막상 떠나니 나름대로 협회 및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현재는 양계조합에 몸담고 있지만 본인도 광주채란분회 회원으로써 양계협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진 = 채란업의 장기 불황으로 인해 서울 경기양계축협도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줄 압니다. 그 동안 위기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서울경기양계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구 = 불황이 이어지는 동안 우리 조합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 대

출을 늘려주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하였고, 심지어 계란을 조합으로 내지 않던 비회원들의 계란을 처리해 주기도 하면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물론 생산수 감축을 위한 홍보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펼쳐 왔습니다. 불황의 폭이 워낙 넓고 골이 깊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로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



◇양계인을 위한 조합이 될 수 있도록 경제사업에 중점을 둘 것이라 강조하는 최준구 조합장

해왔으며, 앞으로 조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갈 것입니다.

우리 조합은 집하장을 중심으로 한 계란유통 사업과 난가공공장을 위시한 가공사업에 어느 때보다 집중적인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계란 집하장이 상인들과 직접 거래를 하다보니 유통 단계만 늘려 문제점으로 대두된 적이 있고, 3년동안 실시해온 독립채산제도 약덕 상인들로 인해 부실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부터 본소에서 책임을 감수하는 관리채산제로 경영을 바꿔 운영하다 보니 현재는 조합원들이 70% 이상을 계약하여 물량을 직접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가공공장도 현재 집하장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없는 물량을 소진해주는 등 수급조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시설이 열악하고 제품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못

해 많은 물량을 소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품의 다양화 등 가공사업을 통한 소비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동진 = 지난 7월 1일부로 통합농협이 출범하면서 양계축협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양계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계축협이 해 나가야할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최준구 =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계획으로 인해 결국 축협이 농협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신용사업은 중앙회의 지침에 따라 구조조정 차원에서 관리해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문제는 경제사업입니다. 이제는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키워 나가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이 없는 사업을 종합 검토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깨끗이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양계산업의 침체를 등지고 부실경영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일부에서는 조합에서는 생산만을 하고, 연합회에서는 유통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 생산자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관리여건을 갖추고 유통에 경험이 있는 조합이 책임을 지고 유통에 참여할 때 실질적인 유통의 정착이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김동진 = 최근에는 난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어 다행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때 사육수수가 증가일로에 있어 결코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양계인들이 양계업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구 = 양계 역사상 유례없는 질병과 저난가로 큰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양계인들이 처절한 현실을 경험해 왔고, 그동안의 부실로 대부분의 사양가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를 거울삼아 이제부터는 농장에 맞는 적정수수를 사육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잉상태에 있는 계란생산량을 어떻게 줄여나가

느냐가 관건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금년 전반기만해도 계란생산량이 0.6%나 줄어드는 등 사육수수 감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수입계란이 항상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높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며, 더욱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생산해야 만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식품이 될 수 있으므로 위생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김동진 = 수도권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 경기양계축협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끝으로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구 = 우선 경제사업에 중점을 두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특히 관리채산제의 경우 생산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에 초점을 맞춘 상품출시 등 양계축협만의 장점을 살려 냉장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들의 식생활문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회가 되면 집하장 및 난가공공장을 확충하여 소비증가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양계협회 회장직을 맡을 당시부터 필요성을 제기한 계란공판장도 이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로간의 이해와 협조하에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동진 = 감사합니다. **양계**